



2016년 11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0월 31일(月) : 주간회의(11시)
- 11월 02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노사 기정진 연보(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1월 03일(木)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최제학 습재실기(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연구원 행사

- 44회 문화강좌 안내
 - 주 제 : 帝都 도쿄의 '불온한' 조선인
 - 강 사 : 서동주(서울대 HK교수)
 - 날 짜 : 2016.11.05.(토) 16시
 - 장 소 : 한지산업관 201호

♣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 전문

신(辛)이여 잘 가거라
김(金)이여 잘 가거라
자네들은 비 내리는 시나가와역에서 승차한다

이(李)여 잘 가거라
또 한사람의 이(李)여 잘 가거라
자네들은 자네들의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다

자네들 나라의 강은 추운 겨울에 언다
자네들의 반역하는 마음은 작별의 순간에 언다

바다는 황혼속에 파도소리를 높인다
비둘기는 비에 젖어 차고지붕으로부터 날아내린다

자네들은 비에 젖어 자네들을 쫓는 일본천황을 상기한다
자네들은 비에 젖어 수염, 안경, 구부러진 등의 그를 상기한다

쏟아지는 비속에 파란 신호등은 들어온다
쏟아지는 비속에 자네들의 눈동자는 날카로와진다

비는 길바닥에 부어져 어두운 해면에 떨어진다
비는 자네들의 뜨거운 불에 사라진다

자네들의 검은 그림자는 개찰구를 지나간다
자네들의 하얀 옷자락은 복도의 어둠에 펼쳐진다

辛이여 잘 가거라
金이여 잘 가거라
그대들은 비오는 시나가와역에서 차에 올오는구나

李여 잘 거거라
또 한 분의 李여 잘 가거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부모의 나라로 도러가는구나

그대들의 나라의 시냇물은 겨울치위에 얼어붙고
그대들의 ×× 반항하는 마음은 떠나는 일순에 곳에 얼어

바다는 비에 저저서 어두어가는 저녁에 파도성을 높히고
비닭이는 비에 저저서 연기를 헛치고 창고 지붕에서 날너날인다.

그대들은 비에 저저서 그대들을 쫓쳐내는 일본의 xx을 생각한다.

그대들은 비에 저저서 그의 머리털 그의 좁은 이미 그의 안경 그의 수염 그의 보기실은 꿈새등줄기를 눈앞에 그려본다.

비는 줄줄 날이는데 새파란 시그널은 올라간다.

비는 줄줄 날이는데 그대들의 검은 눈동자가 번적이다.

그대들의 검은 그림자는 改札口를 지나

그대들의 하얀 옷자락은 침침한 푸랏트흙을 흔날녀

신호는 빛을 바꾼다

자네들은 올라탄다

♣ 나카노 시게하루, <비 내리는 시나가와 역> 관련 사항

- 어대전(御大典)

▶ 천황의 즉위식. 쇼와 천황은 1928년(쇼와3년) 11월 10일에 열림.

- 김호영과 이복만

▶ 김호영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위원,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위원

조선인조직의 일본인조직으로의 '통합'을 주장

▶ 이복만 평론가, 일본사회주의문학계열 잡지에 조선문학 관련 평론 게재

-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도항

▶ 여행증명제도(1919.4-1922.12) 주거지경찰서 혹은 경찰관주재소에서 여행증명서 발급 의무

▶ 자유도항제도(1922.12~) 일정 액 이상의 금전이 있으면 여행증명서 없이도 도항 가능

- 자유도항제의 명분

▶ 일시동인(一視同仁) : 천황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인'으로 대한다.

▶ 조선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신민'이라는 일시동인의 명분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도항을 <관리>하는 것을 가능해도,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

- 1928년 당시 일본 내 분위기

▶ "특히 조선인에 대한 단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시모노세키에서 도쿄로 들어오는 직통열차에 올라타서 거기에 조선인이 있다면 어떤 이유,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혹은 화물의 검사, 숙소와 직업에 관한 심문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해 어대전 시기 조선인의 입국을 저지하려 했다...어대전 중에 조선인에 대한 태도는 조선인이 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사하라 겐조, 1929년 제국의회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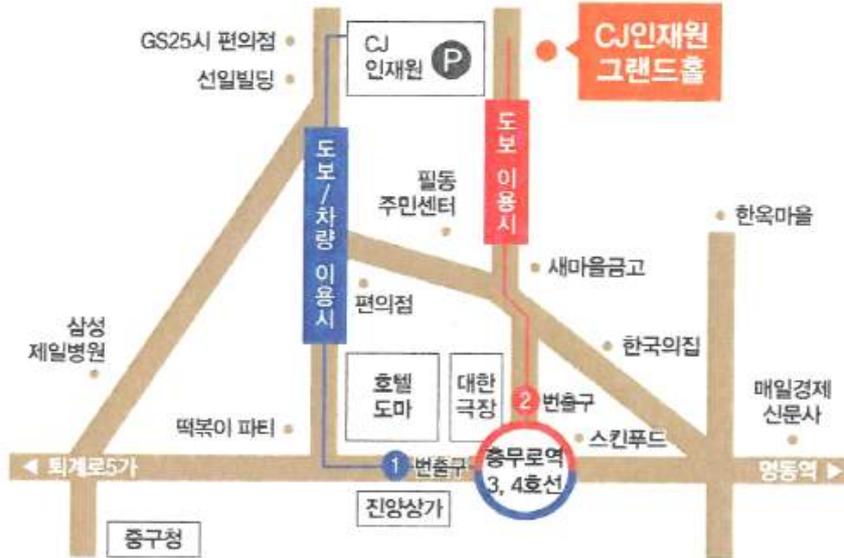
■ 연구원 소식

○ 이규수 운영위원 장녀 혼인

: 이규수 운영위원의 장녀가 혼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6. 11. 12(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CJ인재원 / 그랜드홀



CJ 인재원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6 (필동2가 101-1) TEL 02-2280-3114

○ 왕기석 명창 기념공연

: 지난 10월 24일 전주 경기전 어진박물관 트랙에서 우리 연구원 이사이신 왕기석 명창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2016 무형문화재 주간 전주의 명인, 명장 기념식에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판소리 수궁가 기념 공연을 하셨습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山中與幽人對酌

산중에서 숨어사는 사람과 대작을 하며

兩人對酌山花開(양인대작산화개)	두 사람이 대작하니 산에는 꽃이 벌고
一杯一杯復一杯(일배일배부일배)	한 잔, 한 잔, 또 한잔...
我醉欲眠卿且去(아취욕면경차거)	나, 취해 잠자고 싶으나 그대는 갔다가
明朝有意抱琴來(명조유의포금래)	내일 아침 생각나거든 거문고나 안고 오게.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감 상

- 이백이 산중에 숨어살다가, 어느 은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지었다. 뜻이 맞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자니, 이 날의 술자리를 빛내려함인지 산꽃이 때맞춰 핀다. 더욱 흥에 겨워 한 잔, 한 잔, 다시 한 잔.....연달아 잔을 기울이는 두 사람이다.

얼마나 마셨을까? 취기에 찾아든 졸음으로 이백이 한 마디 던진다. “내가 지금 취했으니, 그대는 가시게. 그리고 내일 또 술 생각이 나거든, 거문고나 안고 오시게!”

자못 분별이 없는 경지이다. 손님이 갈 때까지 기다리며 대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졸리면 자고 눈 뜨면 함께 격의 없이 술 마시는, 그런 대자유를 공유하는 사람에게 스스로없이 내뱉는 당부이다. 그리고 내일 또 술 생각이 나면, 거문고를 챙겨와 더욱 신명나는 술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당부이다.

이 시에서는 특히 두 번째 구절인 ‘一杯一杯復一杯(일배일배부일배)’가 유명하다. 예로부터 술꾼들 사이에 널리 회자한 탓이다.

■ 역사속의 오늘

○ 不義의 유전, 義氣의 유전 - 1983년 11월 8일

대개의 사람들은 의기나 불의나 유전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오늘의 역사에서 의기의 유전과 불의의 유전에 대해 찾아가 보자.

▶ 황옥 경부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밀정'

황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친일파인가 독립투사인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의 삶을 검토한 본격 연구 자료들이 영화의 흥행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황옥은 1887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에서 태어나 1894년 동학과 1907년 의병전쟁의 참화로 인해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자 1910년 한일병합 당시 문경을 떠나 전국 곳곳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그러던 중 평양 해주 진주 등지에서 재판소 통역생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러던 중 변호사를 지낸 후 임시의정원 법무총장으로 활동한 홍진(홍면희)을 만나 상해로 내왕하며 활동을 하였다.

1921년까지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클로 활동하던 그는 1922년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로 특채된다. 안동의 김시현과 같이 1923년 3월 일제의 주요기관 폭파와 요인암살을 목적으로 폭탄반입 도중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 사건으로 황옥은 서대문형무소에서 6년여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옥 후 동지들과 함께 하였으며 주로 영남지방의 독립운동가(부산의 안희제, 대구의 서상일, 의성의 박시목 등)들과 서로 내왕하며 지냈다고 한다.

해방 직후 황옥은 조선독립운동사편찬 발기인 회에 가입하였으며 미군정 시기 대구의 제3경무총감부 총감으로 근무(10월 항쟁 시기)했다. 1949년 반민특위에서 의열단 사건과 관련된 밀정 권상호와 친일경찰 김태석의 최후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사건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1950년 7월 서울에서 납북당한 후 그 행적은 묘연해졌다.

<황용건, 문경 한두리의 재발견 中, 한국학술정보, 2009년>

그의 동생 황직연(1890~1943)은 일제강점기 치열한 독립투쟁을 벌이던 중 대전형무소에서 1943년 순국했다. 그는 숨을 놓은 지 65년이 흐른 2008년이 되어서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

황직연은 1923년 3월 황옥의 의열단 의거에 연루되었다. 황옥은 1923년 3월 15일 폭탄을 보관하고 있는 김사용과 조황이 체포되자, 그를 시켜 김시현이 피신토록 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직연은 3개월 동안 경찰 취조를 받았으나 무혐의 방면처분을 받았다.

형이 10년 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독립운동 전선에 투신하기에 이른다. 1930년 검거된 황직연은 2년 여를 복역한 후 1934년 '조선공산당재건을 위한 코민테른조선레포트회의' 사건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은 일제 말기 사상 전향한 신갑범이 주도하였으며, 44명이 연루되어 황직연을 비롯한 18명이 동대문경찰서에 구속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심화로 일제는 사상범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1936년 12월 21일 사상범 선도와 재범방지의 명분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실시하였다. 또한 끝까지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을 대상으로 1941년 2월 12일에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사회주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닥치는 대로 검거하였다. 황직연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실시로 대전형무소에 구금되었다. 이후 일제의 집요한 전향 회유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1943년 10월 11일 대전형무소에서 옥사했다.

황직연이 후손을 남기지 않은 것과 달리 황옥은 첫째 부인과 사별한 뒤, 재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1960년 아들을 낳았다. 즉 황옥의 손자. 그의 이름은 황정하.

그는 1979년 서울대 치대에 수석 입학하였으나 색약으로 판명되어 탈락한 후 1980년 서울대 공대에 재입학했다. 1983년 11월 졸업을 앞두고 그는 마침내 시위 주동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그의 결의 배경에 1983년 가을 소위 '야학연합회'에 사건으로 인하여 학

교당국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은 것도 적잖은 이유였다는 증언이 있다. 그해 11월 11일에 미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이 방한을 예정하고 있었다. 당시 모든 민주세력의 결론은 같았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대리전쟁터가 될 수 없었고 일본의 재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민주화 투쟁”이라는 유인물이 휘날리는 가운데 황정하는 방충망을 찢고 나와 밧줄을 맨 채 도서관 4층의 베란다 창틀에 발을 디디려고 했다. 이미 사복경찰과 학교 경비들은 도서관으로 뛰어올랐다.

다년간의 시위 진압 경력으로 비추어 주동자를 확보하면 일단 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그를 검거하기 위해 사복경찰이 들이닥치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던 후 그는 발을 헛디디며 1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대신 경찰이 던진 잠바에 가려진 채 선혈을 토해내고 있었다. 경찰은 황정하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깨진 머리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감출 속셈이었을 것이다. 15미터 위에서 땅으로 추락한 이 불운한 사람은 아무런 처지도 받지 못한 채 땅바닥에 피만 쏟고 있었다. 그날이 11월 8일이었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생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11월 16일 숨을 놓았다. 황옥 집안은 이로서 절손(絶孫)되었다.

한국현대사의 질곡에 몸을 던진 3대의 흔적이다. 개인의 신념과 선택에 따른 의기의 유전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이 가문의 흔적을 보고 있노라면 의기는 유전된다고 믿고 싶다.

불의의 유전은... 의기의 유전과 달리 그 선명한 예가 지금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 예를 찾아 믿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북악을 보자.....